

미션, 비전, 골... 비슷한 말 같아 헷갈려요.

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보자.

우선 미션(mission)이란 ‘우리 기업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말해.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에 근무하다 귀국한 젊은이를 만난 적 있어. 내게 “교수님,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는 친구들은 창업할 때 뭘 갖다 붙이든 사회적 명분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창업자들은 사회적 명분은 그리 신경쓰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라고 하더라.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이야.

제주도는 파도가 세잖아. 소라 중에 물살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구멍 숭숭한 현무암에 딱 붙어 껍데기에 뿔이 자란 뿔소라가 있어. 이건 자연산밖에 없지만, 그래봐야 소라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 반면 일본에서는 나쁜 액운을 물리치는 도깨비뿔 같다고 해서 인기가 좋거든. 그러니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됐는데, 일본 업자들이 담합해 전복의 30분의 1 가격으로 후려쳐 사 가는 문제가 있었어.

제주도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한 김하원이라는 젊은이가 있어. 할머니가 해녀신데, 거친 물에 들어가 고생해서 따온 소라가 헐값에 팔리는 게 손녀가 보기에 너무 속상한 거라. 그래서 궁리 끝에 척박한 해녀의 삶을 20분 남짓의 멋진 연극으로 보여주고, 해녀들이 갓 잡은 해산물로 차린 식사를 대접한 다음, 평생 물질한 90세 해녀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어. 그 무대로 제주도 동쪽 끝, 종달리 해변에 버려진 창고를 극장식 식당으로 개조하고 ‘해녀의 부엌’이라 이름 지었지.

그런데 알겠지만 제주도에는 ‘해녀’가 들어간 식당이나 가게가 흔하거든. 게다가 종달리는 제주 시내에서 한 시간 넘게 가